

한국특허 국제특허심사 필수자료로 인정 받다

다른 나라가 국제특허를 심사할 때는 반드시 한국의 특허를 조사해야 한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 열린 특허협력조약 국제기관회의(PCT Meeting of International Authorities)에서 한국특허를 국제특허 심사시 의무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국제특허출원 최소문헌'에 포함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전해진다.

국제기관회의는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1백26개국 중 미국, 일본, 한국, 유럽특허청 등 국제특허에 대한 심사권한이 있는 12개의 지체권 열강만으로 구성된 회의로 국제출원 관련 법제와 심사기준 등을 자문하는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다.

앞으로 특허협력조약 총회의 승인을 남겨두고 있으나 국제기관회의의 자문을 거친 의제는 총회에서 이견 없이 승인되어 왔으므로 오는 9월 총회에서 통과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국제특허출원 최소문헌'이란 국제특허를 심사함에 있어 반드시 조사해야 하는 기존 특허의 범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현재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특허,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및 스페인어로 된 특허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 합의로 한국특허도 그 반열에 오르게 된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기업은 여러 분야에서 세계적 기술수준의 특허출원을 하고 있다. PDP, 휴대폰, 반도체 등으로 대표되는 IT분야, 줄기세포를 이용한 복제기술로 대표되는 생명공학분야 등에서 선도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특허청 관계자는 '외국 특허청에서 한국특허에 대한 조사 없이는 특허 여부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국제적 인식이 형성되었으며, 이번 우리 특허청의 제안에 대해서 모든 선진국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던 것도 우리 기술과 특허에 대한 국제적 평가가 높아진 때문'으로 설명하였다.

국제기관회의에서 결정된 이번 안건이 금년 9월 총회를 통과하면, 한국특허문헌은 각 국제기관에 보급되어 심사시 의무적으로 사용되게 된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특허가 난 기술과 동일한 특허가 국제특허로 출원되는 경우에는 이들 국제기관에 의하여 반드시 걸러지게 됨으로써, 우리나라의 특허권이 해외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특허심사기간 단축 노력과 함께 심사품질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대책을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2006년까지 특허심사기간을 독일 수준인 10개월로 단축시키고, 심사품질도 미국과 EU 수준으로 높인다는 목표를 정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해 심사관 2백명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신기술 창업 중소기업 1천개 육성

정부가 2009년까지 1천개의 신기술 창업 중소기업을 발굴해 지원한다. 김성진 중소기업청장은 '기술혁신형 창업 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창업 전 단계부터 투자단계까지 정부가 집중 지원할 방침'이라며 '총 4천억원을 들여 창업 교육, 인큐베이터센터 우선 입주 등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기술혁신형 창업 활성화 대책은 5년간 기술혁신형 기업 1천개를 창업시키기 위한 '기술창업 패키지 1000', 실험실 창업 활성화, 창업보육센터 효율적인 운용 등 세가지다.

'기술창업 패키지 1000'은 국가 전략적 산업분야의 신기술을 보유하고거나 개발 예정 중인 창업자에 대해 '전문창업교육+자금+입지+컨설팅+경영·기술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사업이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2백개씩 5년 동안 1천개 기술혁신형 기업의 창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기술창업 희망자 3백명을 선정해 기술창업 전문교육과정

(PIE)을 4개월간 실시한 후 2백명을 추려 1인당 최고 1억원까지 신용대출(연간 한도 총 1백억원)을 해주고 보육센터 입주, 창업 컨설팅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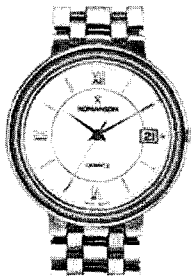
실험실 창업 활성화를 위해 '기술개발 사업화 전문회사'의 대학이나 연구소 내에 설립을 허용해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기술개발 사업화 전문회사는 교수·연구원의 연구성과 특허출원, 개발 기술 상용화 등을 지원하게 되며 특히 대학 연구 결과를 활용한 자회사 설립시 지분 출자 등을 통해 신생 기업의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처럼 대학교수나 연구원이 보유한 아이디어에 대해 대학이나 연구소가 직접 자본참여를 통해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 청장은 '전문회사 설립 문제 등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장기적으로 풀어나갈 과제'라며 '벤처기업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로만손, 해외 짝퉁 시계 때문에 골머리

국내보다 해외에서 인지도가 높은 시계 업체 로만손(대표 김기문)이 최근 주력 시장인 러시아와 터키 등지에서 잇달아 가짜제품(일명 짝퉁)을 적발하면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오메가, 롤렉스처럼 유명 제품 취급을 받는 것 같아 한층 달라진 위상을 실감하면서도 러시아 및 터키에서 시장점유율 선두를 지키고 있는 만큼 이미지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로만손은 지난해 11월 핀란드에서 러시아로 반입되는 로만손 가짜시계 5천7백여개(약 60만달러 상당)를 적발했는데 이는 수상한 검색을 쟁 핀란드 세관 측이 로만손 본사로 제품 확인요청을 해와 가능했다. 로



국내에서보다 해외에서 인지도가 높은 '로만손'이 러시아와 터키 등지에서 짝퉁이 적발돼 골머리를 앓고 있다.

만손 측은 국내 경찰청과 산업보안수사팀이 홍콩 세관의 협조를 얻어 수사한 결과, 한국인 13명으로 구성된 제조자들을 검거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홍콩에 사무실을 개설, 중국에서 저가짜시계를 생산한 다음 이를 제3국으로 유통시키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로만손의 김진만 제품개발부장은 '가짜제품 제조자들은 제품의 디자인과 브랜드

드 로고, 품질보증서를 똑같이 만든다'며 '지난해 말 적발된 물량만도 1백만달러를 넘어서고 있어 앞으로 가짜제품 적발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로만손은 60개국 자가브랜드로 수출하고 있으며 올해 수출목표는 3천만달러 수준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 공동 대응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경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기술유출 방지 대책에서도 상생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기협중앙회)는 지난 3월 23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대·중소기업의 보안담당 임직원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의 기술유출 방지 및 보안 모범사례 설명회'를 갖고 우수 보안대책을 공유했다.

전경련과 기협중앙회가 기업의 기술유출 위험에 관심을 갖고 공동대응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모범사례 설명회와 각종 세미나, 공청회 등을 통해 첨단 보안

대책을 발굴해 보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작년에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 사건은 모두 26건으로 해당 기술이 유출되었을 경우 추정되는 피해액만 해도 32조9천억원에 달하는 등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나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산업스파이 등에 의한 기술유출에 거의 무방비 상태에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가 점차 더 심각해지고 있어 대·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기협중앙회와 공동으로 모범사례 설명회를 마련했다'면서 '보안시스템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보안역량을 강화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아 두세요!

알면 쉽고 즐거운 일 효과 만점! 빨래 요령

매일 넘쳐나는 빨래로 집안일은 끝이 없지만 요령을 알면 쉽고 개운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



세탁물을 정리한다

호주머니는 뒤집어 칫솔로 털고 영킬 것 같은 긴 끈이 있는 것은 고무줄로 고정시킨다. 단추가 달린 긴 옷은 소매의 단추를 몸 판의 단추구멍에 끼워주고 셔츠 등은 소매를 몸 판 안으로 넣어주면 영키지 않는다.

보풀이 이는 소재의 옷은 꼭 뒤집고 지퍼는 닫는데 이는 지퍼의 변형을 예방하고 다른 옷감을 손상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행굴 때도 온도를 맞춘다

세탁물과 같은 온도로 행구는 것이 세탁의 효과를 높여주므로 적어도 첫 번째 행굴 물은 가능한 한 세탁 때의 온도로 맞춰준다. 마지막 행굴을 할 때 뿌연 물이 나오는 것은 세제 속의 세척력 증가제가 원인이나 피부 자극이 없고 섬유 표면에 흡착 되므로 더 행굴 필요는 없다.

세제는 그때그때 맞춰서 고른다

세탁기에 물을 먼저 받은 후 세제를 넣고 충분히 녹인다. 분말세제는 100% 녹지 않으므로 유아의 옷은 물 세제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락스나 일반 세제를 함께 넣으면 반응하여 유독가스가 발생하므로 함께 넣지 않도록 한다. 물과 세제를 5대 1의 비율로 분무기에 담아 세탁 전 때가 많이 묻은 곳에 뿌려주면 때도 잘 지고 세제도 절약할 수 있다.

탈수 후 주름 막으려면...

세탁기에서 탈수 후 바로 꺼내야 옷의 주름을 막을 수 있으며 꺼낸 세탁물은 바로 건조대에 널지 말고 개서 겹쳐 놓은 뒤 30분쯤 지나 널면 다름질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겹쳐 놓은 세탁물 위에 수건을 씌우고 밟아줘도 같은 효과가 있다.

검은색 옷은 뒤집어 넣고 짙은 색상이나 무늬 옷은 그늘에서 말린다. 마른 빨래를 걷을 때는 탁탁 털어주며 걷어야 마르면서 생긴 미세먼지를 어느 정도 털어낼 수 있다.